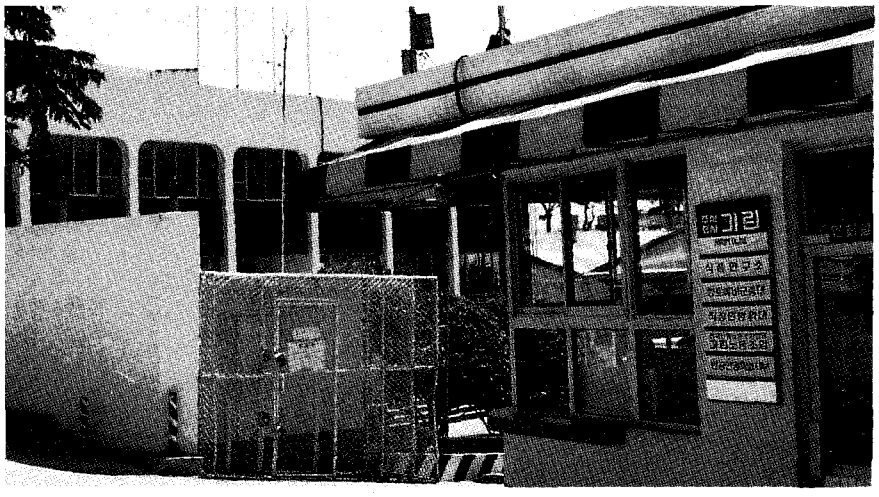
주식회사기린부산공장

기린, 뛰자 88 !

—최선의 환경관리, 최고로 맛있는 빵—

■ 편집부



▲주식회사 기린의 본사 및 부산공장 전경

뛰자, 88 ! 기린의 힘찬 구호가 수영만에 메아리친다. 올리픽싸이트인 수영만 요트경기장의 수역을 맡으자로서 큰 역할을 하고있는 주식회사기린인 까닭에, 또한 최선의 환경관리와 더불어 최고로 맛난 빵을 만들어 우리 기호인들의 입맛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까닭에, 기린의 현장은 모든이에게 역시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세계로부터의 관문인 부산에 튼튼한 다리와 길다란 목을 하고 서있는 기린의 모습을 따라서 본지는 쉽게 국토를 종단하기에 이르렀고, 환경관리모범업체(88—19)로 선정되게 된 실체를 스케치하여 5월의 화려한 현장으로 내 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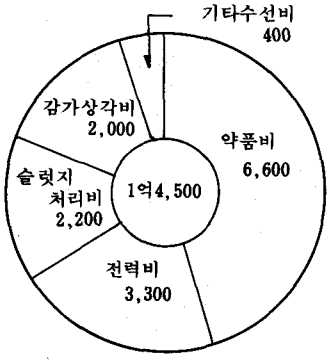
주식회사기린은 인화, 창조, 노력의 사훈아래 1969년 5월에 설립, 이미 성년이 된 기업으로서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동 1476—34번지' 6,455평대지에 연건평 4,386평 규모인 본사 및 부산공장외에 대구공장, 수원공장이 활발히 가동되고 있다. 식품사업외에도 기린은 몇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데, (주)기린산업, (주)기린건축, (주)기린시스템, 기린화학(주), 삼정산업(주)가 그것이다.

제품으로는 수원공장에서 생산하는 본젤라또 아이스크림, 쿠기류, 냉동제품인 궁중만두 등이 있고, 본공장과 대구공장에서는 주로 빵류를 만들고 있는데, 몽꾸꾸 페스트리, 왕비식빵외 약130종의 빵을 생산한다. '78년 진즉부터 1일 150만개의 빵을 판매해왔다니, 얼마나 친근한 벗으로 우리곁에 선 기린인지 실감할 수가 있다.

본 공장은 대기2종, 수질4종의 업체이긴 하지만, 수영만 인접지역으로 그 중요도에 있어서 특종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류수에 대하여 알아보면 허용기준치를 넘지 않는 정도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저농도의 폐수를 배출하고 있다. 심지어, 본공장의 폐수가 부근

지역의 생활오수를 희석해줄 만큼 깨끗이 방류되어, 수영만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해달라는 관청의 협조요청이 있을 정도라니, 아무튼 방지시설현황을 보면서 그 진상을 파악해보자.

기린의 폐수는 제빵폐수로 처리용량은 1,200m³, 폐수처리장은 360m³/day로서, 침사지 및 스크린휠터를 사용한 물리적처리와 중화응집 및 가압부상방식의 화학적처리를 거쳐 활성오니법으로 처리하는데, 원수 및 처리수질은 〈참고 1〉과 같으며, 톤당 폐수처리비용은 1,104 원이다. 〈참고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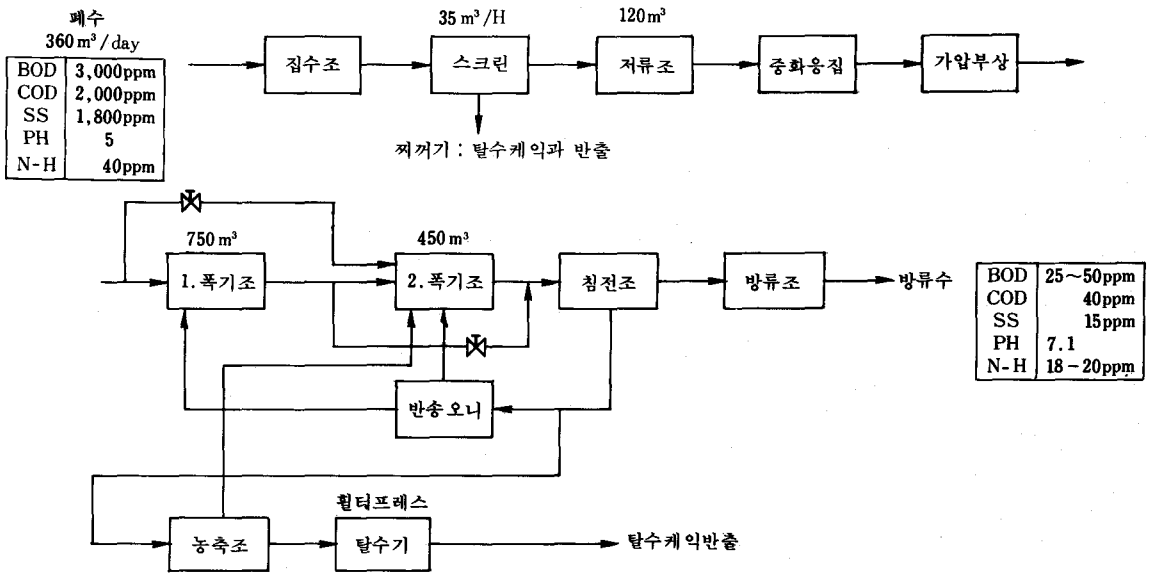


(단위 : 만)

〈참고 2〉 년간 폐수처리비용

'79년부터 '87년까지 4차에 걸쳐 2억 2천 5백만원을 투자하여 수질부분의 설비를 신·증설하였는데, '86년의 3차보수시에는 이미 허용기준치를 훨씬 밑도는 처리수였음에도 불구, 관청의 보수요청이 있어, 근본적으로 처리방법을 Media법으로 바꾸어 보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었다. 이때, 폐수처리전문가의 수준을 능가하는 이희산상무는 첨단방법인 Media법으로 하길 주장했고, 이학기부사장은 시행착오의 확률을 감안하여 종래의 활성오니법을 주장해서, 이 일을 맡은 정종형공무차장은 브리핑때마다 상반된 두 의견에 곤욕을 치르곤 했었다한다. 결국, 전주 및 청주의 Media법 적용현장을 견학하고, 여러 자문을 구한결과 Media법이 학술적

〈참고1〉 폐수처리공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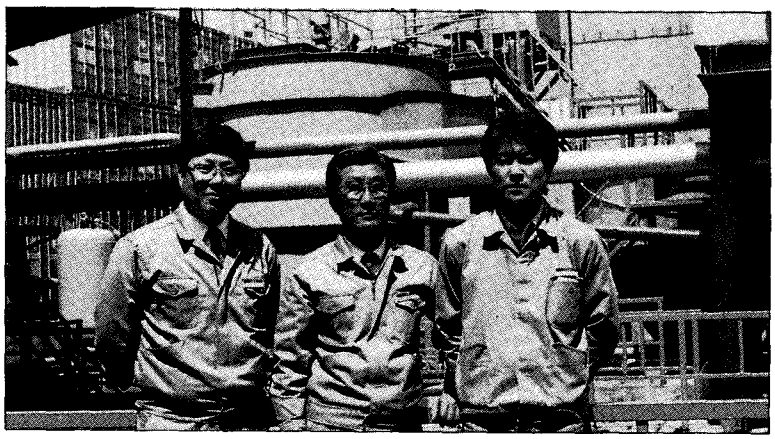


으로는 가능하나, 외국에서 설비만 수입하고 운전관리기술을 도입하지 않으므로, 운용상 난제를 갖고 있다는 결론을 얻고 좁은 공장내에 가까스로 폭기조를 증설하였다. 그러고나니, 주변의 주민들이 폭기소리에 잠을 못자겠다고 아우성이라 지붕을 설치하자, 이번에는 구청에서 나와 무허가건물이라고 으름장을 놓으니 갈수록 태산이었다고 그때를 회상하며 웃는다.

부산경남협의회(장준영회장)와는 좋은 협조체제를 이루고 있어, 여러군데의 현장견학 및 운용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정차장은 말한다. 부사장이하 간부진이 하루1회씩 폐수장을 순찰하는 관심을 갖고 있으며, 4년전에는 생산라인에서 식용유를 대량 쏟으므로 말미암아, 폐수처리에 큰 트러블이 있게 되자 노성진공무부장은 손수 3일간을 기름을 걷어내느라 값비싼 안경까지 잊어버렸다고 일화를 들려준다. 수질담당 임장식환경관리인도 '저희회사는 방지시설 운영비가 따로 설정되어있고, 여러가지 시설지원이 항시 열려져 있기 때문에 타사의 환경관리인 친구들에게 자신있게 저희 회사자랑을 하고, 저 자신이 환경관리업무에 자부심을 갖고 있지요.'라고 말한다.

대기부문에는 3톤과 5톤의 보일러에 그리고 B-C유오븐(각각 220ℓ/H, 400ℓ/H, 100ℓ/H)에 멀티싸이크론집진기를 보유하고 있다. 앞으로, 금년 하반기에는 B-C유오븐을 경유 혹은 Gas오븐으로 대체할 예정이며, NOx 및 SOx저감방안을 강구중에 있다. 대기배출물질은 CO가 270ppm, SOx 840ppm, 분진 180mg/Nm³ 매연2도로 각각 본수치 이하의 배출을 하고 있다.

년전에는 배출검뎅으로 인근 배출밭의 배추잎사귀에 구멍이 났다고하여 소출전량의 배추를 자사에서 매입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 수질부분의 누차례 보수때마다 주거지역인 공장주변 지역민의 말썽을 사서 도로 및 하수도보수, 담장설치, 다리공사 등 도시미화에도 기여를 해왔다. 식품업체로서 이미지를 좋게하기 위해 최대한의 지역주민 써비스와 최상의 환경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주식회사기린이다. 수질관리 차후대책으로서 톤당 폐수처리 비용을 800원대로 절감할 계획아래, 공정상 유기물유출을 억제함으로써 슬럿지를 감소(6m³/day→4m³/day)하는 한편, 사상균번식을 억제하여 약품비를 절약하고, 슬럿지케익의 유기비료화를 계속 연구검토하는 중에 있다. 부산지역의 수산대학, 부산대학교의 환경관리연구팀, 그리고 환경관리인협의회와 연결하여 자문을 구하는 등 확실하고 진보적인 환경관리체제를 구축해나가는 기린공무부가 있으므로, 우리는 올해 9월 푸른 부산앞바다를 가르며 달릴 새하얀 양팅 무리를 고대할 수 있게 되었다.



▲폐수처리장에서 정종형차장, 노성진부장, 임장식관리인(좌로부터)

주소/부산시 해운대구 반여동
1476의 34번지
전화/(051)
523-1632
523-9401